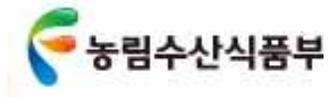


▣ 연구요약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0



목 차

I. 계획개요

- 1. 계획수립의 근거 1
- 2.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2
- 3. 계획의 기대효과 4

II. 2차 계획의 성과와 보완점

- 2. 2차 5개년 계획 성과평가 지표 6
- 3. 2차 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8
- 4.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보완점 11

III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1. 3차 계획기간 중 여건전망 14
- 2. 3차 계획 정책목표 18
- 3. 3차 계획의 정책과제 23

IV.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27
-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35
-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41
-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46
- 5.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51

I. 계획개요

1 계획 수립의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기본계획의 평가와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비전 및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법 제5조에 규정된 기본과제 포함).

〈 기본계획의 목적·성격 〉

-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살기좋은 농업·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법정·종합계획**
- ◆ 계획의 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

2 계획 수립의 목적과 필요성

□ 계획수립의 목적

- 최근 농어업,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농어업에서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경영, 마케팅 등의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에서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사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성장 동력으로 부각됨.
-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주도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의 비전 및 목표와 과제설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활성화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계획수립의 필요성

- 최근 농가경제에서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1.6%로 향후 농어가 인구감소와 농어업인력 고령화에 대비한 중요한 성장 동력임.

- 특히 여성농어업인 육성 2차 5개년 계획기간('06-'10) 동안 농어업정책 방향이 농어업을 1차+2차+3차(6차 복합산업)로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농어업·농어촌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 짐.
- 또한 노인복지, 도우미제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의 지원자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사회의 여성농어업인은 농촌 활성화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함.
- 따라서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대하고, 농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을 농어촌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반영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농업생산자, 경영자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및 지위향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 복지서비스의 지지자, 다문화 통합의 실천자 등의 역할을 보완한 미래 농촌사회 주된 경영자로서 여성의 역할 증진에 따른 정책을 도출해야 함.

3 계획의 기대효과

□ 2차 계획과 차이점

- 생애주기별, 경작규모별, 활동영역별 차별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
- 3차 계획기간에 변화된 여성농어업인 정책대상의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포함시킴.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영역을 핵심과제로 추가하여 제시함.

□ 기대효과

- 1.2차 5개년 계획의 성과평가에 기초한 3차 계획기간의 과제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연속성 담보를 통한 정책의 성과지표 향상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적 능력 향상 및 농어업 전문역량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토대를 강화

- 농어촌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II. 2차 계획의 성과와 보완점

1 2차 5개년 계획 성과평가 지표

□ 2차 5개년 계획평가 지표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형성	목표의 적합성	- 상위 국정지표의 부합성 및 환경변화 대응도 - 정책목표의 명확한 제시정도
	계획의 충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충실성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의 부합성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 여부 고려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 일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 - 투입된 자원의 목표달성 관련 효율적 집행도
	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의 포착 및 대응의 적절성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홍보되는 정도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정책성과	목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 달성 정도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정책대상자들에 미치는 영향

□ 2차 5개년 계획기간 여성농어업인 관련 여건변화

○ 여성농어업인 추진체계 변화

- *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농식품 관련 사업 포괄)
- * 어촌, 어업관련 정책 추가 : 여성어업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됨
-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기구 변화(과가 없어지고 농촌사

회여성팀으로 변경 되었다가 다시 농촌사회과로 변경됨)

-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사업 등 주요사업 지방이양

□ 2차 계획 타당성 평가

- 1차 계획 평가결과 정책목표로 농업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와 역량강화를 제시함. 2차 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목표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남녀 파트너십 정착으로 설정함.
- 정책목표가 삶의 질과 남녀 파트너십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추진과제에 양성평등성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제시됨.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고 정책추진체계 역시 성별영향평가나 성별통계 등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됨.
- 또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지원,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마을리더 육성과정에 여성의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과제가 세부과제로 제시된 점 역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거주민으로서 다양화되는 여성들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정책제시였음.
- 이러한 목표나 시책방향은 농어업 일반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아젠다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내용임.

- 그러나 중점 추진과제와 핵심사업이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음. 예를 들면 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지위향상과제로 설정한 점이나. 연금 및 보험수급권의 확대를 복지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차 계획에 비해 2차 계획은 농업·농촌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긴 했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의 제시가 미흡했음. 특히 정책에 대한 이해대상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상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세부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2차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 농식품부 2차 계획 추진실적 평가

- 추진체계
 - * 부처의 축소로 추진체계의 변화가 발생함.
 - * 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주요 과제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 추진체계로 등장함.
 - * 2005년 8월4일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5조를 개정.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 이에 따라 2차 계획기간 동안 모든 광역지자체의 여성농업

인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음. 또한 매년 집행결과 및 시행 계획을 보고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이 보고되고 있지만 단순보고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중앙과 지역의 추진체계 연계망이 약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방정부로 정책이 이양된 사업의 경우 중앙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집행력이 매우 낮게 나타남(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2차 계획기간에 증가 미진).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세부추진 항목으로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생산자조직 참여확대,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정착 지원, 양성평등 의식 확산의 6개 과제를 설정하였음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농가공동경영협약 및 농어업관련 각종 법안의 개선이 이루어져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음.

○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 2차 계획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세부항목으로 정보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및 컨설팅, 품목별 전문교육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 양성, 여성농정위원 교육, 선도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등 7개 항목을 설정하였음.

*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서는 영농형태, 세대, 지역 사회의 변화, 농어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 일/가정 양립 및 계층 다양화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함. 특히 복지영역은 취약계층 복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및 생산적 복지 정책의 수준에서 제고되어야 할 영역임

□ 지자체 추진실적과 평가

<표 1> 시·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기본계획)에 따라 5년 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시·도 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제 시행에 필요한 투융자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수립된 시·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	○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작성	매년 농촌사회에 제출
	농식품부 농촌사회과	○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책목표 : 모두 동일함.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음.
 - * 시도 시행계획의 지역편차가 심함. 여성농어업인 정책항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가 필요함.
 - *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실효성이 제기됨
 - * 정책수립의 기본인 정책대상자 욕구조사 및 자문, 심의 등의 과정이 전혀 없이 기본계획을 제시함. 또한 정책의 집행체계가 없음.

3 2차 5계획 계획의 성과와 보완점

성 과 점

-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광역지자체까지 여성농어업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가능케 함.
- 지방정부 정책추진의 제도마련(조례 제정).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양성평등 성 주류화 패러다임 통합노력 확대. 농어업·농어촌의 변화에 조응한 창업관련 지원 강화.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농가경영체 등록시 경영주와 종사자를 명기, 농지원부에 가족란을 명기, 공동경영협약 확대 및 여성의 참여 증진 노력.

- 복지관련 서비스 영역 중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됨. 특히 출산도우미의 경우 도시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농촌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 여성의 능력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실질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

보완점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남녀 파트너쉽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파트너쉽을 증진 할 수 있는 양성평등 확산이나 여성참여 증진에 대한 노력 적음.
 - * 농업정책의 성 주류화는 미흡, 또한 농촌지역 양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미흡
-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 * 농어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하는 능력증진 관련 훈련과정 미흡. 교육관련 도구의 다양화 및 단체편중성을 극복하고 여성농업인의 단계별, 전문영역별 특화된 관리체계가 필요

- * 후계인력이나 여성 귀농인에 대한 정책대안이 실행되거나 점검되는 시스템이 미약함.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미약. 지방이양시 고려 필요.
- * 문화관련 정책은 후퇴- 기초생활 보장 정책, 서비스제도 개선 등의 영역은 확대됨.
- * 농작업재해, 연금, 고령여성 관련 지원은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고령 여성농어업인을 생산자원화 정책방안 마련 시급.(일본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로 고령여성을 생산자원화 선정)

○ 정책추진 인프라

- *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매년 시행결과를 보고 점검시스템 필요. 이행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보고가 형식에 불과함(시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예산연계 등 인센티브 필요).
- *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자에 대한 정책이해 교육필수. 업무전담부서 전문인력이 필요함.

III. 3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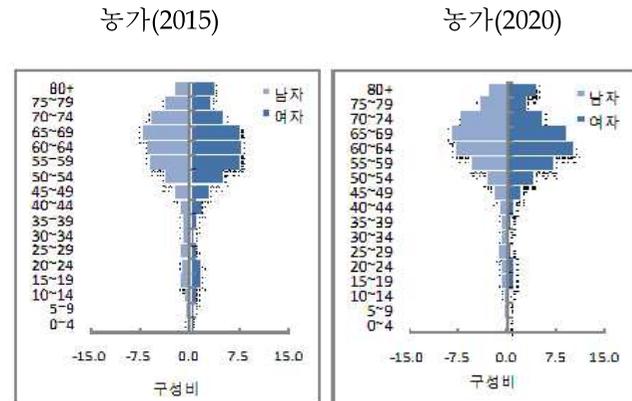
1 3차 계획기간 중 여건전망

□ 여성농어업인 인구통계학적 여건

○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여성화

- * 농촌인구는 2004년 총인구 대비 7.2%에서 2014년에는 4.5%로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5).
- *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어 농촌사회 자체의 존립 위기가 도래함.
- * 빈곤의 여성노인화, 독거노인의 여성세대주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임. 이를 담당했던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서비스 지원 역할이 증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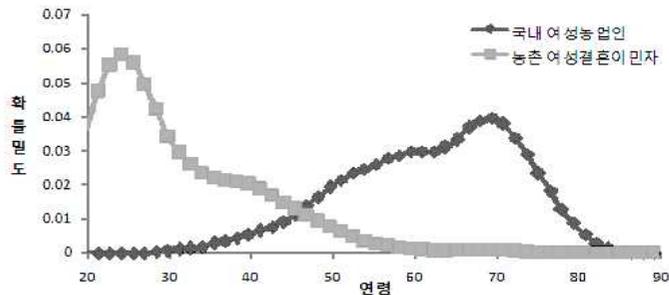
<그림 1> 장래 농가인구 구조 변화 (2005~2020년)



○ 다문화 가족의 증대

-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건수는 2000년 11,605건에서 2009년 33,3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09년 10.8%로 증가함(2010 박대식 국정과제공식세미나)
-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은 2009년 도시(동부)가 17,846건으로 농촌(읍·면부)의 6,839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구성비는 농촌(12.9%)이 도시(7.2%)보다 높음. 2009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5,640명 중 35.2%에 해당하는 1,987명이 외국여자와 혼인함.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2.8%에 불과함.

<그림2>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국내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2008년



자료: 2008 여성농업인 통계, 농림수산물부

□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여건

○ 농가의 양극화가 확대.

- * 3ha 이상 농가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3ha 미만 농가는 점점 축소하고 있음. 규모의 양극화는 농어촌 내부에 농업만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농가의 발생으로 인한 농외소득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임.

○ 작물재배 형태의 변화로 여성노동력 수요증가

- * 전업농 비중은 감소하고 겸업농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 농외취업비율은 2004년 18.7%에서 2014년 23.2%로 증가할 전망.

○ 농가소득 구조 악화

- * 농업외 소득에 대한 요구증대 및 농가경제 향상을 위한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가 매우 절실함. 특히 결혼이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농업의 가공 등 재촌 취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결혼이민여성 농가의 1년간 농축산물 판매액은 1,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6%.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40세 이하 국내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2,000만원 이상이 52%.

□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

-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성별통계의 발행,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의 수립, 성인지 교육의 강화 등 4개 항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여성부의 성 주류화 정책의 강화로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도전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촌사회에서도 후계세대에 대한 관심 및 농업 이외의 영역을 통한 이주민들에 인식도 전환될 것임.

□ 농어촌 복지에 대한 정책강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여성, 가족(특히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노인인구에 대한 농어촌 개호 대상과 내용의 확대가 실시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농어촌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교육, 의료, 고령영세농, 다문화,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사업 등에 대한 참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농어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변화

- OECD는 향후 농촌의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인구변화, 인구이동, 고령화, 경제변화 등을 통한 도-농연계의 기회와 위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특히 미래농촌이 녹색성장전략에 대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자연자원, 생태계 관련 서비스, 문화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원이 농촌의 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함(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자료 2006).
- 2005년 북경대회에서는 농촌에서의 남녀 차별의 철폐 및 공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2 3차 계획의 정책목표

□ 여성농업인의 여건변화에 조응하는 인력육성

-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정의 패러다임을 농업생산에서 농산물가공, 식품, 농촌 공간 등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정책이 세분화되고 있음. 대규모 농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가로 지속 육성하되, 중소규모 농가의 지원을 위한 농업공동체회사 육성, 농업유통회사의 설립을 통한 법인화 가속화 등으로 정책이 전환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적합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의 육성 및 농산물가공 전문 인력화가 중요한 과제로 됨.

□ 농업노동력의 약화 및 감소에 대응하는 농어업 후계세대 양성

- 농작물 재배전망은 쌀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고 시설작물의 경우 증가추세임. 시설작물의 증가는 농어업의 여성노동 참여를 증진하는 요인이 됨.
- 여성농어업인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계농업 인력의 육성은 첫째,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여성농어업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 둘째, 신규 취·창업 인력으로서 여성농어업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특히 신규 취·창업 인력육성과 결혼이민 여성을 영농인력화 하는 방안도 중요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 농어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원의 확대와 농어촌 고령인력을 생산자원화 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가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고령여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작업 취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한 지역통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영역 발생
 -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이민여성 본인의 문화적·사회복지적

욕구만이 아니라 이민 2세대인 아동의 문제를 유발함.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2명 출산시 19세미만 다문화자녀는 '05년 농가인구의 2.5%에서 2020년 49%로 증가 예상.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양육과 보육지원
 -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 육아서비스 기관의 미비는 젊은 세대들의 농어촌 정주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됨.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축을 위한 남녀 파트너십 강화

- 농촌지역의 경우 생산단위가 가족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경영의 주체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부부나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한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문제가 중요함. 특히 가족내의 성 평등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중요함.
- 2010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 결과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제약요인은 지역사회 남성주도성 52.6%와 더불어 여성들의 인식미비 31.6%로 응답해 남녀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농어촌의 인구구성 다양화에 기반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성 참여 방안 마련

- 농촌지역의 고령화, 귀촌인구 증가, 다문화 가족 증가 등의 인구 특성은 지역사회 통합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육구, 농산업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 및 개발 역량을 요구하게 됨.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임. 따라서 여성 농어업인들이 사회서비스 인력 영역확장.

여건 및 전망	정책 과제	정책방향
<p>1. 인구통계학적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인구의 감소 • 고령인구의 여성화 • 결혼미만여성 증가 • 농촌여성인구의 다양화 • 농가인구중 여성농업인 비중 증가 	<p>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농식품 가공관련 인력육성 • 농가경영에서 여성농업인 전문영역 및 경영능력 관련 역량강화 • 여성CEO 육성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지원 	<p>여성농어업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는 역량강화</p>
<p>2. 산업 경제적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 악화로 인한 농외소득 활동 증대 • 농가양극화 확대 • 작물재배구조변화, 여성농업인노동참여율증가 • 농업후계인력 결혼이주여성 영농자원화 • 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참여영역 확대 	<p>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후계세대 육성(여성 귀농자 적극지원) • 귀촌귀농 인력 조직화 • 결혼이민여성 영농인력화 • 신규 창업능 지원 	<p>여성농어업인의 조직 참여 확대</p>
<p>3. 정책변화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강화 • 여성참여 확대 증진 •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 • 농업정책 영역확대 • 분권화로 지방자치체 역할 중요 	<p>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조직에 참여증진 • 농정위원 여성비율증진 • 여성농어업인 단체육성 • 지역개발에 여성참여 비율 확대 	<p>여성농어업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p>
<p>4. 복지수요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증대 •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요구 강화 • 일/가족양립, 문화권, 다문화, 고령인구복지 등 • 가족기능약화, 돌봄노동 사회화 	<p>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여성 생산자원화 • 여성노인인구의 지역사회복지인력화 •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 일/자정 양립지원확대 • 여성농업인 문화서비스 확대 	<p>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및 의식 확산</p>
<p>5. 농어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 동력으로 농어촌에 관한 관심증대 • 국제적으로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확보 필요성 강조 • 식품 등 여성의 전통지식자원 중요성 인식 	<p>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정책인력 확충 • 성별영향평가 제도 강화 • 성별통계생산 • 정책성과 환류시스템 구축 • 양성평등 의식 확산 	<p>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p>

3 3차 계획의 정책과제

3차 5개년 계획 추진시책과 핵심과제

<비전>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



<목표> 남녀 농어업인의 파트너십 증진



<추진과제>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권리향상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여성농어업인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인력육성	여성농어업인 맞춤형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 정책인프라 강화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4)	(과제5)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인정 · 정책결정 참여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 지원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육성 · 후계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 육성	· 여성농어업인 건강 및 의료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정비 ·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 지원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인정과 권리 확보

○ 생산자 조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여성농어업인이 농업생산에서 담당하는 역할만큼 직업적 보상 및 노동기여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여성농어업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정책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어업인이 농가경제를 향상하고 스스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령별, 거주형태별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개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 농어업 노동이 중노동에서 경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어업 기계나 농작업 도구의 개선 및 농작업 환경을 향상.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 여성농어업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
-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과 농어촌 사회로 진입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및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농어업·농어촌의 성장 동력을 육성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 과중한 노동부담과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 질병치료 및 예방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강화.
- 일/가정 양립은 여성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초적 목표이며 기본전제임. 농어촌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과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별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들에 맞는 문화서비스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을 지원.

5)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정책추진 인프라는 제도와 인력과 예산이 갖춰져야 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할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예산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인프라를 강화.
- 성평등한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한 균형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 남녀 농어업인이 농어촌사회와 농어업의 발전에 동시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농어촌, 농어업의 실현을 위한 각종 통계 및 정책평가,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증진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농어업인 단체 스스로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성의 증진 및 여성농어업인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실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

IV.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정책 방향

- 여성농어업인의 농업인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의 파트너로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여성농어업인의 가족경영내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가경영협약을 확대 보급하며 농지의 부부공동소유제, 부부공동농장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도화.
-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위원회의 여성위원 40%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협의체를 육성하며 각종 마을(지역)단위 개발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작목반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주도형 법인 및 공동체회사를 육성. 또한 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의 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
- 여성의 직업인으로서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여성연금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연금가입율을 확대.

1-1.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

1)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인정

□ 현황

-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2009년 51.5%로 농업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가구 농업노동 중 43.6%는 여성농어업인이 1/2이상을 담당
-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농가에서는 여성 스스로 혹은 배우자가 여성농어업인을 공동경영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추진방향

- 농가경영체 등록시 농업인으로 등록 홍보활동을 강화
- 여성 후계농, 전업농 선발시 가점 부여
-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 공동권리 행사 등을 보장하도록 제도 보완
-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안 수립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인 등록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단체를 통한 홍보&특별추진의 달 운영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 및 노후보장 실태 조사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 확대방안 공청회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농어업인 독자 연금가입 추진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2) '농가경영협약'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현황

- 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에 의해 농가경영협약 체결한 농가는 매년 증가함
 - 협약체결농가수 (누계) ('4년) 22호 → ('08년) 282호→('09년) 322호
- 현재 농가경영협약은 여성농어업인 단체 주관으로 이행되고 있어 여성의 권익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일본의 인정농업인제도, 여성농어업인 연금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중

추진방향

- 농가경영협약을 농가경영체 등록과 연계하여 추진
- 농가경영협약과 농업정책 대상자 선발의 연계방안 검토
- 전국, 시도 단위 농가경영협약 체결농가 협의회 구성
 - 정기모임을 통해 사례발표 및 협약 재구성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가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 제도마련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정책자금대상자 선발과 연계방안 모색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시도 및 전국단위 협의체구성	농식품부					
연금가입과의 연계방안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					

3) 여성농어업인의 피해 구제 및 법률 상담

현황

- 농협에서 농업인의 권리의식 함양과 법률적 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중임
 - 172개 시군에서 법률상담 전담창구 개설
 -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을 통해 상담사례에 대한 홍보
 -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등의 활동
- 이동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활동이 주로 남성농업인 위주로 진행됨

추진방향

- 중앙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전담 상담 인력 육성 및 확보
 - 여성농어업인 전담 법률 자문단 구성 : 농림부 명의의 위촉장 부여
- 여성피해 사례 및 피해구제 사례 수집 발간
 - 기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여성 특화적인 사례를 수집 발간하고 농림부 및 지역농협 홈페이지에 게재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단위 여성농어업인 전담 법률자문단 구성	농식품부					
농협의 이동자문단	농협					
여성변호사 선임확대	농협					
여성피해 구제 사례집발간	농식품부 농협					

1-2.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1)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현황

- 중앙 및 지자체의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2차 기간 중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 : '09년 20.1%('08년 27.3%)

-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 9개도 평균 27%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07년까지 40%를 목표로 함(여성가족부)

추진방향

- 3차 육성 기간 중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40% 확대
-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훈련
- 지자체의 위원회의 여성위원 가운데 여성농어업인 비율 확대
 - 3차 육성 기간 중 : 여성위원 40% 중 여성농어업인 비율 30% 달성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정위원회 여성위원 40% 확보	농식품부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개발	농식품부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실시	농식품부					
지자체 여성위원 및 여성농어업인 비율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2)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 강화

현황

- 2차 계획기간 중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09년 광역단체 9개, 기초자치단체 26개에서 조례제정

추진방향

- 시도단위의 연도별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과 연1회 이상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 확대 추진
 - 3차 계획기간 중 5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 계획기간 전 시도(市道) 및 50개 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세칙마련	지자체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육성 조례제정	지자체					

3) 마을운영 및 개발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현황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등의 사업과 향후 공동체 회사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농촌마을종합개발 : 265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74개소 , 공동체회사 : 2011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수사업체 1000개 육성)

추진방향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마을개발 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녹색농촌체험마을, 공동체 회사에 여성참여율을 40% 유지
 - 남녀공동대표제를 유도(사무장 여성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심사 시 여성참여비율을 20%이상 의무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창업지원 확대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마을단위 개발사업 여성참여율 40% 확보	농식품부					
	농촌공사					
공동체회사 여성참여율 40%확보	농식품부					
	농촌공사					
마을단위 개발사업 선발평가 여성평가자 확대	농식품부					
	농촌공사					

4)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현황

- 2차 육성 계획 기간 중 농 수협 여성조합원 및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수협의 경우 여성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
 - 조합원 : 농협 29.7%, 수협 27.4% / 대의원 : 농협 15%, 수협 3.7%
 - 임원 : 농협 4%, 수협 0.6%
- 2차 육성계획 기간 중 농협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도 증가함('08년 565개 농협, '09년 572개 농협)

추진방향

- 여성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는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
 - 농협 : 여성조합원 30%, 여성대의원 30%, 여성임원 10% 달성
 - 수협 : 여성조합원 30%, 여성대의원 20%, 여성임원 10% 달성
 - ※ 축협도 농협과 같은 비율의 실적 달성
- 신규 대의원 및 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실시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수축협 여성조합원, 대의원, 이사 할당 목표제	농수축협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리더십 교육 과정 개발	농수축협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리더십 교육 실시	농수축협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정책 방향

- 농어촌 지역 농외소득활동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농촌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 경영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 진행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전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도우미 제도 확대 및 수급체계의 효율화, 마을공동급식소 사업 진행

2-1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지원

1)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 현황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됨(농가경제통계 각년도).
- 농어업 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들이 현재 농외소득 활동 현황은 매우 낮음.
 - 여성농어업인의 겸업활동 비중은 2003년 8.7%에서 2008년 13.1%
 - 일본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 2005년 9,050건, 공동창업 63%

□ 추진방향

-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인큐베이터 과정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공동체 회사 육성(년차별 비율할당 30%목표)
- 여성농어업인들의 생산품을 학교급식 납품, 지역푸드지원 시스템 등과 연계 의무구입 지원.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업인 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회사 선정기준에 여성기업 가점 반영	농식품부					
여성기업 생산품목 우선구매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기업지원단 운영	농식품부					

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여성인력 육성

현황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젊은 여성농업인은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젊은 여성농업인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창업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20대, 30대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고, 40~50세 장년층 여성농업인은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높게 나타남.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이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를 창출함.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령여성 전통자원 모델연구	농식품부					
고령친화 마을기업 육성	여성가족부					
농어촌사회서비스 인력육성 프로그램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노-노 케어 사업실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2-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현황

- 여성농어업인 교육기관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부족하여 교육내용의 중복되어 있음.
- 농관련사업 경영참여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 경영능력 배양 필요
-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관련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CEO과정' 운영.
-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필요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업인 CEO 과정 운영	농식품부					
교육도우미 실시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실시	농식품부 농협					

2) 평생학습 체계 마련

현황

- 평생학습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으나 최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평생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취미, 소양, 영농기술, 정보화, 요리 등 음식관련 연구 및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짐.
-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단편적인 교육으로 운영되어 교육결과의 활용 및 정책연계가 곤란한 실정임.

추진방향

- 학점은행 도입으로 평생학습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세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표준화 매뉴얼 개발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학점은행제도 운영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여성농어업인 강사은행 운영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평생학습 센터 운영	농식품부 농진청					

2-3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현황

- 농기계가 대부분 남성위주로 설계·제작되어 있어, 여성농어업인은 농기계 이용률이 낮은 편임. 이러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은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짐.
- 여성농어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로 나타났음.

추진방향

- 여성전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전용 농기계임대 강화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부담 완화를 위해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
- 여성농어업인의 농번기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을공동급식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이 활용가능한 농기계 임대 사업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도우미제도 확대, 수급체 계 효율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동급식소 지원확대	농식품부 지방자치체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정책 방향

-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로 육성
- 차세대 여성농어업인력으로 후계여성농어업인과 여성귀농업인 육성
- 결혼이민여성을 농어업인력으로 적극 활용

3-1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육성

□ 현황

- 농가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 농어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과거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민주적 조정과 관리가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이 되면서 마을리더로서 여성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역개발 참여의 어려움으로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도 큰 제약 요인이었음. 특히, 마을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함.

□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 대상 회의, 토론 능력 함양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정보수집 및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이장 마을에 부업장려금 등의 정책 지원 우대는 여성리더 확대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또한 우수 여성이장 마을 포상제도 등을 마련하여 여성리더 육성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확대를 도모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리더십교육확대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여성농어업인 정보활용교육	농식품부 지방자치체					
여성이장마을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3-2 후계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 육성

1) 후계 여성농어업인 육성

현황

- 신규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여성 가산점 제도가 1992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1999년 20.3%까지 선발되었던 후계여성농어업인 비율은 이후 하락 추세에 있음.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은 농업인력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

추진방향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지원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 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가칭)여성농어업인 인력은행」을 설립함.
- 후계여성농어업인 교육 및 정착을 위해 중견 여성농어업인 인적 자원을 활용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후계 여성농어업인 육성	농식품부					
귀농 여성농어업인 멘토 육성	농식품부					
후계여성농어업인 성공사례 대회개시	농식품부 한여농					

2) 귀농 여성농어업인 멘토 육성

현황

-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퇴직 후 농업에 종사 경향 증가로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00가구 수준
- 농업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여성귀농인은 중요한 농업인력 자원임. 따라서 여성귀농인의 농업인력화를 위한 정책 필요

추진방향

- 여성귀농자 멘토링 사업
 - 기존의 여성농어업인과 신규 여성귀농자 간의 협력 체계 지원
 - 농사기술, 농지구입, 작물선택, 판로개척 등을 신규 귀농자에게 지원
 - 멘토(귀농자도우미) 발굴 및 지원 : 읍면별 1~3명 선발
- 여성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기존주민과 여성귀농·귀촌자간 만남의 장 마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귀농자 멘토링사업	농식품부					
여성귀농, 귀촌자 만남의 장 마련	농식품부 지자체					

3) 결혼이민여성의 농어업 인력화

□ 현황

- 농림어업인중 외국인여성과의 혼인비율은 2003년 21.1%에서 2005년 35.9%, 2008년 38.3%로 증가하는 추세임.
- * 여성농가인구 중 20-30대 이민여성농어업인 : ('08) 10.0% ('20) 53.2%
- 농어촌 결혼이민자의 69%가 농업활동, 교육 및 지역사회활동에 73%, 취업활동에 43%가 참여한 경험이 있음.
- * 사회활동 참여율 : 일본(85.1%), 필리핀(80.5%), 중국(70.3%), 베트남(65.9%), 캄보디아(63.0%)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여성인력을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육성,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지역아동 영어보조교사, 농어촌 사회 복지서비스 인력 등으로 지원하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제공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육성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일대일 영농기술교육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여성창업 인력육성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정책 방향

-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노인인구의 여성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은 중요한 정책과제임
-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항목은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음.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도출하였음.
- 여성농어업인 복지정책 과제를 도출할 때 전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제외(예를 들면 농어촌 자녀 학자금 등)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만을 특화함.
- 특히 영역별(거주유형, 재생산노동의 특성, 생애주기)로 반영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도출함
- 특히 최근 농어촌 복지의 3대 화두인 여성농어업인 건강, 다문화가족, 일-가정 양립을 통한 후계세대의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의 효율적인 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통해서 귀농자, 이민자, 토착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이 농어촌지역 거주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4-1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1) 한방보건 진료 확대

현황

- 농어촌 지역 노령화 지수는 전국평균보다 1.5배 ~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여성농어업인 43%가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
- 여성농어업인들이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통, 관절염 등 쭉그리고 앉는 농작업 상태에서 비롯된 질병이 높음
- 따라서 만성퇴행성 질환자 치료인 한방진료가 중요함
 - 한방보건진료인 허브보건소는 54개에 불과함

추진방향

- 1군 1한방보건소 확보
-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의 확대.
- 주1회 이동버스를 운영 병의원 접근성을 강화.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한방진료소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관련실 한방도구 확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의료버스 운행(공동버스)	보건복지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질병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2) 여성농어업인 질병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도구 보급

현황

-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50대, 60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임. 젊은층의 건강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농촌마을 건강관리실 확대추세이나 비치되는 시설이 런닝머신, 안마기 등 일반적인 헬스도구인 경우가 많음.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만성질환 관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지침, 뜸 등 예방요법 보급
 - 여성농업인센터, 농협문화복지센터 등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건강관련 체조 및 위생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질병이 진전될 수 있는 환경요인 제거.
 -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나 순회진료시 건강검진 중요성 홍보
 - 마을 건강관리실 건강기구 실태파악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건강프로그램 보급	농협, 지자체, 농진청					
건강검진홍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남녀유병율의 성차 반영한 건강도구 배치	보건복지부, 지자체					

4-2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서비스 강화

1) 1면 1국공립 유치원 확보

현황

- 만6세 미만의 아동의 대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견해로는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26.8%임.

추진방향

-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 농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가 증가하고 있음. 모든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수혜를 위한 공보육 개념으로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 농어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그룹홈 보육 확대
 - 소규모 그룹홈 보육의 장점은 거리접근성의 향상 및 계절성, 시간제 등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농촌 보육 및 교육 지원 교사 지원단 육성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1면 1국공립 유치원확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촌 공동탁아 그룹홈 인증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어촌 지원 파견보육교사단 운영	보건복지부 지자체					

4-3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지원

현황

- 문화의 차이는 시설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은 더욱 낮음.
 - 지역문화 복지시설 대도시 59개소 기초생활권 5.77개,
- 1년 동안 70.4%가 문화행사 및 시설 관람 경험 없었음.
 - 39세 이하에서는 64.3%, 40대에서는54.4%, 50대에서는 66.8%, 60대는 72.7%, 70세 이상은 77.9%

추진방향

-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 향상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문화동아리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어업인 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중 프로그램개발이나 소모임 지원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었음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관광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지원 확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문화경진대회	농식품부					

5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정책 방향

- 정책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와 사람, 조직과 돈 4요소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의 정책대안 필요.
- 정책추진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의 개정보완 및 담당부처 인력의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정책의 구체적 실행파트너가 지방자치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정책담당 인력확보가 중요함.
- 2차 5개년계획의 평가에서 보여지듯이 지자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성과 및 환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함.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집행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였음
- 최근 여성관련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이 농수산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 영역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강화를 제시하였음.
-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 성별통계에 대한 생산 및 활용조향을 강화하여 성별통계 생산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년차별 농업정책 관련 성별통계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함.
- 농어촌 지역의 보수화로 인해 양성평등한 지역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 관련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 교육 및 의식 확산 강화 방안 모색.
- 여성농어업인 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역할 증진 방안, 여성관련 정책연구 과제 실행 등의 방안을 제시함.

5-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 현황

- 2차 계획 기간중 여성농어업인 관련법과 제도는 부분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정비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특별법의 내용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나 정책환류에 관한 수단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제도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필요.
- 각종 여성농어업인 관련법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정책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추진을 평가하는 전담기구 설치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 제정 독려(기초자치단체)	지자체					
여성농어업인관련 법의 개정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정책집행 우수지 자체 담당자 시상	농식품부					

2) 여성농어업인 정책 평가지표 및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

현황

- 현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 현황은 형식적으로 보고 될 뿐 집행을 강화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실행은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추진방향

- 성과지표 및 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 및 성과 유인요인이 제공되어야 함.
- 성과 인센티브로 표창과 예산 연계지원 방안 마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추진 및 집행을 연계 시스템의 강화 방안 구축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성과 우수 지자체 표창	농식품부					
성과 우수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중앙-지방 여성농어업인 정책 담당자 정기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5-2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 성별영향평가 확대

현황

- 농업정책의 품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정책 중 성별격차가 예상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함.
- 농업정책의 경우 정책목표가 대부분 농가를 단위로 하는 沒성적(gender blind)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의 의미가 매우 큼
- 2006년 13개, 2007년 6개, 2008년 2개, 2009년 3개로 사업 축소됨.

추진방향

- 농업정책 중 여성농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정책사업을 설정하여 연차별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 1과 1과제 평가 및 평가 환류협의회 구성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1과 1과제평가	농식품부					
성별영향평가 환류협의회 구성	농식품부					
성별영향평가 과제 우수담당자 포상	여성가족부					

2)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강화

□ 현황

- 성 인지적 통계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보여주고 정책 결정과 입안, 설계, 실행 및 평가에서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도구임. 제3차 여성발전을 위한 FAO 행동계획은 성인지적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농업관련 통계의 통계청이 주관의 농업총조사가 있음.
 - 일반적인 항목에 성별구분통계는 있으나 주로 가구주인 남성을 중심으로 통계가 종합되어 있음.
 - 어업관련 통계는 2007년부터 성별통계가 부분적으로 생산됨.

□ 추진방향

- 성별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목표에 부합함. 따라서 성별통계는 생산만이 아니라 활용 역시 일상화되어야 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년차별 성별통계의 생산	농식품부					
사업보고서 작성시 성별통계 의무화 (지침 보완)	농식품부					
농업총조사, 통계청 조사에 성별통계 관련 지표개선	농식품부 통계청					

3) 양성평등 교육확산

□ 현황

- 여성의 참여활동에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6%가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을 지적함. 여성의 인식미비가 31.6%, 가족의 반대는 10.7%로 나타남.
- 성평등 지수에 있어서는 가족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음.
- 성차별 경험은 60%, 영역은 농업정책 69.7%로 가장 높음.

□ 추진방향

- 농업관련 공무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이해 과정 설치
- 농업정책 관련 지원시 정책수혜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농업, 어업, 임업 후계자 선정시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 적용
- 공동경영협약 가구의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 적용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관련 공무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이해 과정 설치	농식품부					
농업정책 관련 지원시 정책수혜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농식품부					
농업, 어업, 임업 후계자 선정시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적용	농식품부					
공동경영협약 가구의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 적용	농식품부					

5-3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1)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및 기능전환

현황

- 여성농어업인 관련 민간지원기구로서는 유일한 기구 2005년 지방이후 사업이 정제되어 있음(현재 38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중 필수사업에 대한 지역특성별 보완 및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 특히 여성농어업인 상담 및 문화, 교육 등 특화된 기능 요구가 높음.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전환 유도
 - 농촌공동체 회사 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특화
- 1군 1센터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각종 농업관련 지원 프로그램 우선 배정
 - 지방양여금 배분시 인센티브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정 및 유관사업 지원 실시(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등)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농식품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역아동센터 지정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농식품부					

2) 여성농어업인 단체 육성

현황

- 여성농어업인 단체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연계 및 공동리더십 교육활성화.
-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위한 단체 활동 미흡.
- 최근 전문적 관심사나 생산여건을 바탕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전문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들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추진방향

- 전국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도자들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지역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
- 농업의 전문화와 지역적 분화에 따라 품목별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조직을 발전시킴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단체지원	농식품부					
여성어업인 단체네트워크 활성화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단체					
도 시군여성농어업인 협의체결성	지자체					

■ 신규/계속¹⁾ 사업 여부

추진과제	신규	계속
가.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권리향상		
①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		○
②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
나.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 지원	○	
②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③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
다.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①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육성		○
② 후계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 육성	○	
라. 여성농어업인의 맞춤형 복지증진		
①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②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서비스 강화		○
③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	
바.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①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	
②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③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 지원		○
과제수(13)	4	9

1)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세부추진 과제를 보완하여 2차 계획과 동일하지는 않음

■ 세부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1-1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							
•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인정						농식품부	
• '농가경영협약'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단체	
• 여성농어업인의 피해 구제 및 법률 상담						농식품부 농협	
1-2.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마을운영 및 개발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농식품부	
•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농식품부 농수축협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향상							
2-1. 여성농어업인 취·창업 지원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농식품부 농진청	●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여성인력 육성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2-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농식품부	
• 평생학습 체계 마련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2-3.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여성전용 농기계 임대활성화						농식품부	●
• 도우미제도 확대, 수급체계 효율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마을공동급식소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3-1.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육성							
• 여성농어업인 리더십 교육 강화						농식품부	
• 여성이장 마을 인센티브 제공						농식품부 지자체	●
3-2 후계 및 귀농여성농어업인 육성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						농식품부	
• 귀농 여성농어업 멘토 육성						농식품부	●
• 결혼이민 여성의 농업인력화						농식품부 농협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4-1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확대							
• 한방보건 진료 확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어업인 질병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도우기 보급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
• 여성농어업인 질병 전문병원 지정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
• 주간 의료버스 운행						농식품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
4-2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 서비스 강화							
• 1면 1국공립 유치원 확보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
• 농촌 공동탁아 그룹홈 인증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농어촌지원 파견보육교사제도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4-3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지원							
• 면단위농협 문화센터 강화						농식품부 농협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
• 문화소모임 활동지원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지자체	●
5.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5-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 여성농어업인 정책평가 및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지자체	
5-2.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성별영향평가 강화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강화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확산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5-3.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농식품부 농수협 농진청	●

<부록> 일본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지방자치체 사례)

■지역사례 : 지바현 농산어촌 남녀 공동참여 기본방침(제2기)

제1장 배경

지바현 현인구 : 600만

주생산 : 농산물- 쌀, 어류

1) 시책방향 : 안심농산물 생산,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확대

- 신뢰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 개성적인 경영체 육성
- 지역의 창의 공부에 의한 매력있는 농산어촌 만들기
- 활력있는 경영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의 장을 확보
- 국제화 대응

2) 남녀공동참여계획, 국가(농림수산성)의 각종 기본계획과 관련

- 농림수산업에 있어서 남녀의 파트너십의 확립,
- 생기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실현.
 - 여성의 재능력 개발의 도진지원,
 - 정보제공 등에 의한 의식개발,
 -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제도의 구축 등에 의해 여성의 시책, 방침결정의 장이나 경영 참여 축진을 도모하고 남녀가 함께 담당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
 - 국가에서 기초 식료농업 농촌 기본계획(2005년 3월), 삼림. 임업기본계획(2001년10월), 및 수산기본계획(2002년 3월) 농림수산업에 관한 활동에의 여성의 참여축진을 명기해 두고, 이들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영참여의 축진 등.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확립을 향한, 종합적인 대책의 추진에 노력한다.

3)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2002년 3월 [지바현 농산어업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기본방침]과 그 추진항목을 결정한, [지바현 농산어촌 다양한 지표(2006년 3월) 목표]를 책정하고 농림어업

- 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하나가되어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여성 기업가 수나 다양한 세미나를 수료자 수 등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반면 여성 농업위원장수 등은 목표 달성에 미진함.
- 각 지표항목의 달성 현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여성을 핵심으로 한 기업활동에 의한 개성적인 경영체가 생겨나는 등.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만들기의 여성참여가 진행됨.
- 경영참여, 취업조건 정비, 시책이나 방침결정의 장애의 참여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제2장 현황과 과제

1) 여성의 참여는 농림수산업의 담당자를 확보하는 위에서 중요

- 지바현에서는 농업종사자의 50%, 임업종사자의 20%, 어업종사자의 20% 정도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 농업위원, 인정농업자등 정책방침이나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에서는 농림수산업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어 경영개선을 목표를 파트너십의 추진 등에 의해 여성자신의 참여의식의 향상이나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를 추진하여 여성이나 고령자들을 포함한 확대된 인재를 육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2) 기업화등 활동의 촉진을 통해 남녀공동참여 추진이 필요

- 지역에 있어서는 여성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 만들기나 직판소에서의 판매 등 기업활동을 위한 조직이 준비되고 있고 경영의 다각화,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기업가가 탄생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판매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향후 경영규모의 확대나 경영내용의 보완이 요구됨.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기업활동이나 농업단체 등의 여성의 참여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의 경영참여나 사회참여의 상황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3) 생기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창조를 위해 지역활동에 남녀공동참여 필요

-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후계자 부족이나 담당자의 고령화, 휴경지의 증가, 농산물 가격의 저하 게다가 집락기능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지바현의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기도하기 위해서도 담당자는 생산조건 확보, 환경보전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농산어촌의 활성화는 지역의 커다란 과제임.
- 향후 생기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창조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생산활동에 노력하고 남녀가 함께 지역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로 되고 있음.

4) 여성의 참여추진에 해당하는 지역의 추진체계의 확보가 필요

- 남녀공동참여의 추진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자만이 아니라 시정촌. 지역의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로서는 서로 연계된 활동이 증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추진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향후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정보교류 및 추진,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남녀공동참여를 지지하는 환경만들기가 과제로 됨.
- 지역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추진을 기도하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추진에 있어서 추진체계 만들기가 필요함. 또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정촌 단계에서 남녀공동참여 목표 설정이 필요함.

<표> 지바현 농림업 취업자수

인, %

분야	합계	남	여	여성비율
농업	181,300	98,504	82,796	45.7%
임업(2003)	6,929	5,745	1,184	17.1%

자료: 2005년 농림업 센서스

제3장 책정의 취지

본 현에서는 이제까지 2002년 3월에 [지바현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기본방침]을 정하고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도하였지만, 지역에 있어서 참여현황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본 현의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층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성과를 계승해서 강력한 남녀공동참여계획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방침을 정해두었다. 그 기본방침은 농림어업자, 시정촌, 현, 관계단체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상호 연계를 기도하고 주체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본 현의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목표를 통해 달성하고 하는 비전과 그 추진목표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추진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표로서 [지바현 농산어촌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이다.

1)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비전

-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라는 것은 개인이 그 기대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가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농림수산업이나 농산어촌을 동시에 담당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목표하는 모습은 [농산어촌에서 남녀의 빛나는 지역만들기]로 한다.

2)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추진목표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각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상호능력을 발휘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천
경영자로서의 자각이나 경영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그 것을 통해서 경영활동에의 참여촉진을 기도하고, 지바현의 특징을 생생하게 살려 지역의 다양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천, 확대를 추진한다.

추진에 있어서는 경영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부여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제까지 배양된 남녀 상호의 이해에 기초해서 경영에 있어서 역할을 배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주요추진항목

- 여성 인정농업자의 확대,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등에 의한 경영 참여촉진
- 다양한 기업활동의 촉진
- ② 여성의 사회참여의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기있는 파트너십 사회의 실현

농산어촌에 관계하는 심의회, 농협, 어협, 농업위원회 등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농림어업자는 모두 고령자, 여성이나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담당자를 육성하는 지바현 집락영농의 추진이나 농지, 물 등의 농촌환경 자원의 향상 활동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본 현을 특색있고 생기있는 파트너십 사회의 실현을 도모한다. 추진에 있어서는 남녀가 함께 의식개혁과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을 향한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

■ 주요추진항목

- 농협 등의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의 추진
- 농림어업 관계 단체의 임원, 농업위원회의 등용추진
- 심의회, 위원회 등의 등용추진
- 여성리더 등의 육성
- 여성의 조직화 추진
- ③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의 추진으로 남녀가 함께 창조하는 살기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여성 농림어업자가 활동하기 쉬운 작업환경의 정비나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하기 쉬운 조건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영이나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한층 고양시키고, 정보교환과 다른 업종을 포함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내 및 현 지역의 관련조직의 네트워크화를 기도하는 등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보급원이나 먹거리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향한 도시나 농촌어촌의 교류나 먹거리의 안정, 안심, 먹거리의 조직 등의 추진을 기도한다. 이것들의 추진에 의해서 생기있고 활력있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 주요추진항목

- JA(일본농협)헬퍼 등의 활용추진
-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정비의 추진
- ④ 지역단계에 있어서 추진체계의 정비와 여성의 사회 경영참여목표 설정에 의한 남녀공동참여의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
지역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인식하고 있던 효

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있어서의 추진체계의 정비를 시도한다. 특히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정촌 등의 지역단계에 있어서 참여목표의 설정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주요추진항목

-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목표 설정을 촉진
- 여성의 참여 상황의 정기적인 파악과 대응의 추진

지바현 농산어촌의 생기있는 지표

본 지표는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추진목표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농림수산업, 농산어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 목표는 다음 5개년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장 지바현 농산어촌에 다양한 행동계획(제2기)

III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의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창조하는 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1) 헬퍼의 육성			
	- JA헬퍼	746명	946명	연간 40명
	- 낙농헬퍼	41%	50%	축산농가의 가입율
	2) 여성의 활동하기 쉬운 환경정비의 추진, 여성의 네트워크화 추진	현네트워크 크1	현네트워크 크1	전 지구에서의 네트워크화를 추진
		지역네트워크 크6	지역네트워크 크10	
	- 농협의 조직	5조직	5조직	현상유지
	- 노력보완 시스템	16시스템	27시스템	
- 자육에서 지원담당원	2인	10인		
IV 지역단계에 있어서 추진체계의 정비와 여성의 사회, 경영참여목표의 설정에 의한 남녀공동참여의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	1)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 목표설정 가속화, 시정촌 농산어촌 여성비전 2) 여성의 참여상황의 정기적인 파악과 대응의 추진	1시정	56시정	전 시정촌에서 대책을 목표로 하는(2006년3월 시점 시정촌수 56개)

추진목표	추진항목	현황 2006.3	목표 2011.3	비고
I 여성의 경영참여 촉진에 의한 상호능력을 발휘한 다양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현	1) 경영에의 참여			인정농업자(2006.3 현재 4,067명)의 약 50% 년간 10명씩
	- 인정농업자	52명	110명	
	- 가족경영협약 체결	537호	2000호	
	- 여성의 농업자연금가입자	80명	130명	
	- 생기있는 세미나의 수료자	7,734명	9,500명	
2) 기업활동	- 농림업기계연수 수강자	894명	1,300명	
	- 그룹, 개인에 의한 기업	307경영체	500경영체	
II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구축하는 생기있는 파트너 사회의 실현	1) 농협 등의 정조합원 가입			전국여성협의 목표-> 현재 25%증감
	- 농협협동조합 개인 정조합원	21,858	39,750	
	- 어업협동조합 정조합원	1,742	1,742	
	2) 농림어업 관계단체임원, 위원회의 등용			전국여성협의 목표 -> 현재 총대의 원수의 10%증
	- 농협협동조합임원	6	14	
	- 어업협동조합임원	2	등용추진	
	- 농협협동조합총대	257명	1,100명	
	- 여성농업위원	12명	55명	
	3) 심의회, 위원회의 등용 심의위원회	27%	30%	
	4) 여성리더 등의 육성			어식문화의 촉진. 여성이 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생산조직의 비율 업무내용, 명칭의 검토
- 지도농업사	25명	40명		
- 농업사	16명	40명		
- 임업사	5명	10명		
- 여성어업사	11명	15명		
- 와사가나 보급원	40명	40명		
- 농림업생산조직의 여성임원	신규	30%		
- 남녀공동참여 조연자	신규	60명		
- 집락영농조직에의 여성 참여자	신규	66명		
5) 여성의 조직화의 추진	JA 여성부원	9376	11720	전체수의 증가
	생활연구 그룹원	776	1000	
	각 농협 청년여성부원	6조합	참여추진	여성그룹없는 지역의 추진
	임업연구 그룹	3그룹	6그룹	
	어협여성부	3지역	4지역	
	지바여성농업경영자회 회원	127명	300명	미가입지역 추진

일본 농가의 공동경영협정서 작성(예)

[경영발전을 위한 나와 가족의 약정서]

1. 목적

000(경영주)와 000(배우자), 000(후계자), 000(후계자배우자)에 새로운 농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업경영과 가족생활에 한층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영계획과 생활설계의 수립

가족전원이 참여해서 금후의 경영규모 시설정비, 자금, 취업조건 등의 농업경영계획과 나와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합당한 생활계획을 합의하여 세우고 실천한다.

5년 동안에 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소득의 00만원을 목표로 경영향상을 목표로 한다

농업경영규모에 관한 목표

작목	현황		5년 후 목표	
	작부면적	단위면적당	작부면적	단위당 생산량
	사용두수	생산량	사용두수	
수도	100a	480kg	200a わら수집	540kg 8톤
우유	45두	7500kg	45두	8000k
목초	200a	10톤	400a	12톤
면적	300a		600a	

3. 경영의 부분분담

수도작에 대해서는 00가 중심으로 담당하고, 우유에 대해서는 00가 책임자로서 00과 00이 작업에 참여한다. 각각의 부문과도 바쁠때는 협력한다.

○ 경영의 역할분담

가족원 각각의 의향과 능력을 활성화하고 분담을 다음과 같이 두기로 한다.

00: 총괄경영관리, 노동일지 기장, 세금신고, 농작업 계획

00: 근무건강관리, 레크레이션

00: 농업부기 가계부입력, 농업기계 정비

계획과 세금의 신고는 00, 기장과 가계부 의 분석 계획은 00이 분담한다

4. 휴일, 휴가노동시간

부문이나 재배시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작업 상황을 모아서 휴일로 한다. 정확히 전원이 1주간에 1일은 휴일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일의 노동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농번기에 도 수면시간은 6시간을 확보한다.

5. 급료, 수익배분

매월 지급일을 정해서 00에게로 월급 00만원, 00에게는 월급 △△만원을 구좌로 입금한다.

년 월 일

주소 :

경영주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 배우자

입회인

1.2.3.5 조항이 있는 경우 인정농업자의 공동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 일본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비교

	한국	일본
법	농림수산물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특별법	식료 농업·농촌기본법 남녀공동참가기본법
추진 체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정국 농촌사회과 농촌사회팀 지역계획 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	농산어촌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여성,고령대책실 지역계획수립
내용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추진 조직	담당부서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
방식	점검없음	매년 달성목표 점검, 콩클대회 개최